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들

선교소식지 제 2호를 내면서 해외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며 작은 것 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매순간을 강생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수녀님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은 선교지에서 “사람, 환경, 자연을 살리는 생명공동체”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총장 차클레멘스 수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복음 선포자들은 ‘두려움 없이 성령의 활동에 열려 있는 이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반대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새로움을 선포할 용기를 지닌 이들이다. 이런 이들이 선교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그분 백성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를 바라신다. 고통 받는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단죄하는 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의 선의를 추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내 삶의 봉헌은 의롭게 된다. 풍요로운 결실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채기 힘들고 양으로 따질 수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곧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절대로 장례식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는 기쁨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우울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은 “나는 선교적 선택, 즉 선교적 열정을 꿈꾸고 있다. 교회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관습과, 관행과, 스케줄과, 용어들과 구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꿈꾼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수녀님들은 바로 교황님이 꾸는 꿈을 함께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회심을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 회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들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선교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평화를 빕니다.

다시 돌아온 中國

권 벨리나 수녀

하느님께 영광!

2013년 3월 중국 선교지에 파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20 여 년 동안 살았지만 한국어로 신앙을 접했기에 그곳 교회의 상황과 교회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중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끔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1 학년을 마친 후 비자문제와 중국의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어렵사리 살고 있는 수녀님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에 마침내 중국에서의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서약 갱신 피정 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수도자 신분으로 중국에 가려하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으며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정을 마쳤지만 아무 계획이 떠오르지 않았고 다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설렘과 함께 빈 마음으로 응답하고 싶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수도회 설립카리스마와 정신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3월 6일 그동안 입었던 수도복대신 사복을 입고, 수녀님들의 배웅 속에 북경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한족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녔기에 다른 조선족 아이들보다 중국어 실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9년 살다보니 가끔 중국 신부와 수녀들의 모임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데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곳은 황하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투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에 오히려 외국에 온 느낌마저 들었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은 했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고 아이들의 사투리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말을 다시 묻고 따라 하면 자기들끼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면서 흉내를 내곤 하였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방문할 때도 그나마 30-40%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내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불편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로 띄우며 인사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체험은 있지만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로도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중국어 교회 용어도 모르기에 중국어로 교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2개월은 하비에르 수녀가 교리 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다가 5월부터 파우스타 수녀가 합류하면서 3명이 각자 한 곳씩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는 ‘딸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믿어준다.’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과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어로 교리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않지 않았고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몫을 한다면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처음 하는 교리이기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중국어 교리서와 한국어 교리서 그리고 전에 한국에서 받아온 교리ppt자료를 참조하고 때론 모르는 것은 공동체 수녀님들께 도움을 청하면서 교리 준비를 했습니다. 몇 일간의 준비 끝에 제가 교리 해야 하는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두 곳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되는데 목요일에 가는 이곳은 산골이고 언덕이 높아서 오토바이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기에 차가 있는 신자가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차타고 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 집만이 신자가 있었으며 저희가 가면 집주인은 주변의 몇 명의 이웃들을 불러옵니다. 대부분 60,70대의 어르신들로 그 앞에 서니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려고 큰 소리로 시작기도를 하고 성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성가를 마치고 어르신들께 전에 배운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제가 준비 한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한 것

처럼 쉽지 않았고 중간에 말이 막히고 ‘음~,’ 의 말이 많았다고 나중에

함께 한 수녀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듣기만 하시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들으셨는지 확인하면 웃기만 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면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저를 바라보시고 들어주심에 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희망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물도 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주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의하는 날에 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가 왔습니다. 한 참 저의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한 단어를 잘 못 사용했을 때 그분이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슨 강의를 하는 거야?’ 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던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면서 강의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중국어로 교리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선교가 시급하고 필요하기에 공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하러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다행이도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탔기

에 오토바이를 배우는 것이 쉬웠습니다. 화, 수요일 교리강의 하는 곳은 산골에 있어서 가는 길 양 쪽이 버드나무로 가득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새로운 자연속의 자유로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수녀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중국에서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축일에는 수도복을 입고 시내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참례를 하게 되는데 수도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면 정말 볼만한 풍경인지 길 가의 사람들이 저마다 바라보곤 하는데 심지어 차창을 열고 쳐다 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수녀원 전례 때만 수도복을 입기에 일반 사람들은 수도복 입은 모습을 보기 쉽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국! 이곳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전기오토바이를 배워서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남성용 기름을 넣는 ‘봉~봉~’ 소리 나는 오토바이도 제법 잘 운전합니다. 짧은 머리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남자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능숙하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국, 사랑하는 이곳,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분이 여기에 계시기에 어렵지만 기쁘게 오토바이 타는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초대에 와서 보았기에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분의 지혜와 크신 은총을 함께 청하며, 주님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첫 시작의 씨앗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희망을 주는 빈증 한글 학교

이 모린 수녀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중국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남쪽에 있는 호치민(사이공) 지역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함께 거주하는 문제 혹은 선교는 금지가 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해야 할 사도직을 찾던 중에 호치민에서 조금 떨어진 빈증에서 사이공 한글학교의 한 분교라 할 수 있는 빈증 한글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한베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설립하여 빈증 대학의 강의실 3 개를 빌려 1년 6개월 정도 수업을 하였습니다. 주말 한글학교로는 토요일 오전에 한 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빈증 대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뜨거운 햇볕 아래 긴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모들이 기다릴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 좀 더 안정된 장소에서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싶었던 학부모들과 저희는 어렵사리 집을 빌려 3 개 교실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5일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5~14세의 어린이 29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교무 주임 1명(류 베르뇌시메온 수녀), 교사 5명(수녀 2명, 한국인 봉사자 3명),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 2명이 보조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많은 한베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치민(사이공)의 푸미흥이라는 지역은 신도시로서 영사관이나 기업 등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많은 주재원들과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곳에 살면서 한국 국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빈증은 마땅히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으며, 점점 발전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베 가족들이므로 한국인 교사 수급에 대한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빈증 대학교에서 한글학교를 시작할 당시 사이공 한글 학교에서 파견한 교사 세 명이 2시간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출퇴근하며 오전에는 빈증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사이공 한글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1년 6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빈증 한글학교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반의 수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한글은 아빠와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지 이곳에서 소통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빠들은 직장 생활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나마 한글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한글공부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 빈증의 개인집을 빌려 학교 형태로 바꾸어 일주일에 세 번 방과 후 오후 5시에서 6시 30분까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오후 수업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각 반별로 요일에 따라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쉽게 싫증을 내는 아이들이라 같은 것들을 재미있고 다르게 가르쳐 줄 방법을 연구하고, 한국의 아이들과는 달리 단어나 문장의 양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도 이 아이들에게 맞게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몇 개월 가르치다 보니 집에서 아빠와 대화를 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빠들은 아이들이 3~4세가 되면서부터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혹은 지역적인 이유로 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기회가 적은 실정입니다. 주말을 이용하는 빈증 한글학교로 시작한 했지만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회적인 여건상 사복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저희가 수녀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학부모들 중에 신자는 없지만 수녀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남편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상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바래다주러 왔다가 그리고 남편이 한국인이라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한국말을 배워 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교실을 통해 한국 문화·언어·음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과 다르게 집을 빌려서 한글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엄마들과도 친밀해 지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가족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도직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고 사는 한 배 가족에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도직이 또 하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성 신부님이 강조한 가정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또한 사도직에 대한 지속적인 식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배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빠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가르쳐 줌으로써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출발!

박 세영알렉시오 수녀

저희 아비아떼라이 공동체는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강생의 예언적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는 15차 수도회총회 결의문에 따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차코 아비아떼라이 주민들은 농업, 목축업, 벌목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토는 한국의 30배 크기로서 드넓고 비옥한 땅으로 세계적인 농업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밭에 서있노라면 멀리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거나 거대한 트랙터를 이용하여 곡물을 수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유전자 변형 작물 생산 세계 3대 국가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가 합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농약에 저항성을 가진 것만큼 잡초들도 거기에 따른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 농약 사용률이 줄어들기 보다는 점점 강하고, 다량의 농약 사용에 따라 이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피해도 점점 심각해져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암, 피부병, 기형아 출산, 유산, 호르몬 장애 등 수많은 병들과 원인 모를 증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죽어가고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심각한 가뭄 바로 이 상황이 저희에게 주어진 절박한 상황임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머리와 가슴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마당 한편에 작은 밭이 있는데 해마다 호박, 오이, 얼갈이배추, 근대, 고추, 부추, 고구마, 양배추, 상추, 열무, 가지, 파 등 많은 채소를 심어 저희의 먹거리용으로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그 용도만이 아니라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령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퇴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령이 키우는 두

개의 집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와 풀을 한데 모아 썩힌 뒤에 지령이를 넣었더니 3개월 정도 지나자 양질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 저희의 작은 실천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5월을 끝으로 6개월 만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농부들은 물론 마실 물조차 바닥이 드러난 마을 주민들에게 비 소식은 또 다른 복음이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마을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지만 비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물이 새는 바람에 걸레와 양동이가 총 동원되고, 애써 가꾼 밭이 물에 잠겼어도 그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지령이 집은 폭우 속에서도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라온 상황에서 저희는 정성들여 가꾼 푸성귀들을 건져내기 위해 우비를 입고 흐르는 빗물에 씻고, 보관 할 수 있는 것은 삶아내고, 얼갈이배추는 물김치를 담으며 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밤중이라도 깨어 일어나 빗물을 받기 위한 준비로 비설거지를 하고, 지붕이 씻기길 기다린 후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 모두에 빗물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 더욱더 심해져가는 가뭄 현상 그리고 농약비가 쏟아지는 들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이것이 생명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지령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볼리비아 비루비루의

호세 탁아소를 준비하면서...

최 글라렛 수녀

새로운 땅, 낯선 사람들, 해야 될 소명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듣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신앙 안에서 받아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임시로 호세 신부님 사제관에 머물면서 주변의 학교, 보건소, 경찰서,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며 이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주변 탁아소를 견학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 교육을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에 현지인들로부터 그곳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산타크루스 시청, 읍사무소, 우유·기름·밀가루 공장 등을 다니며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또한 동네 정육점으로부터도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한 발품을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이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비루비루는 정글 지대처럼 이웃 간의 거리가 멀어 지역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탁아소는 1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지만 전기, 천장에 물이 새는 것, 모기방충망, 화장실 수리, 안전철망 등 수리 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탁아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린이 안전, 보호, 교육, 서류, 경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11월 16일에 사제관에서 호세 탁아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 회사에 요구하여 공사하였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일일이 손을 봐야 할 곳은 많은데 일꾼들이 오지 않아 포기하려던 참에 들어 온 전기가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주교관에서 주신 3,000볼로 냉장고, 가스레인지, 침대, 책상, 옷장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하루 종일 시장 조사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배달 온다는 사람이 8시 30분에 왔는데 침대 나사가 없는 채 그냥 놓고 가는 바람에 조립 할 수 없는 침대만 바라보며 얼마나 웃었던지요!

볼리비아에서는 어처구니없게 웃을 일이 많은 탓에 인내심 혹은 빨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수도회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수녀님이 자기 일처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착한 일꾼을 소개 시켜 주어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니 고마울 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새는 천장을 고치고, 지붕 처마에 관을 설치하고, 성당과 수녀원 담이 낮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을 높이 세우고, 탁아소 주변에 전기를 설치하여 조금씩 탁아소 운영을 위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고, 공사먼지로 인해 시간의 대부분을 청소하는데 소요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공사가 지연되어 막막한 기분도 들었으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이기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와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아이들 과 교사 명단이 작성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교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아이들 신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서의 안배를 믿으며 더불어 성모님의 전구하심에 의지합니다. 수녀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시작은...

김 야곱 수녀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음을 더욱 절감하는 요즈음입니다. 엇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낯선 언어, 문화, 환경, 풍습들을 접하면서 색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아기들이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놀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빨래터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뱀의 눈빛,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커다란 두꺼비, 저와 마주칠 때마다 더 놀라서 줄행랑치는 도마뱀들, 아침에 문 열고 나서면 밤새 고양이와 사투를 벌이다 죽어있는 박쥐에 놀라고..... 휴우~~ 일 년이 지나도 아직 어설프고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친해져야 될 친구들이 아닐는지요?

이와는 달리 먼저 다가와 노크하면 반가운 이들이 있습니다. 언어 구사에 따라 친구의 대상도 다르듯이 제 친구들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수녀원 문을 두드리며 “Jacoba(하꼬바)”를 외치며 놀자고 합니다. 게임을 하자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의 ‘수건돌리기와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공통된 것을 찾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6~7살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 하면서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심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 밖에 나서면 마주치는 수많은 아이들, 서로 질세라 목청껏 저희를 부르는 그들이 저에겐 비타민이자 엔도르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은 일 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성탄 전 9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몇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400 여명의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3시간가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비용은 온전히 모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위해 모금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새벽부터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모금(일명 트랑까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살짝 두렵기도 하였지만 호기심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들을 가로 막고 도와 달라고 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뒤에서 올려대는 경적소리며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찌나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우였음을 깨닫는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긴 밧줄을 이용하여 차로를 가로막자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다가 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한 푼씩 모금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두세 시간을 모금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눔이란 결코 많이 가진 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대형차를 몰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꼬까(코카인의 원료인 말린 꼬까 잎사귀)를 입 안 가득 물고 운전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운전기사들, 받기조차 민망한 오토바이 기사들..... 이들의 기부는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모금활동과 몇몇의 자발적인 기부로 아이들은 9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니폴장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큰 것을 두 개 더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성탄 전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물놀이를 맘껏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작은 나눔은 이렇듯 볼리비아의 꿈나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과자, 사탕 하나에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 이곳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방문을 다니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국의 가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도 의외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 빛, 공기.....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찡그리며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볼리비아에 와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산이나 모자를 잘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을 구입할 만 한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우산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현지 선생님께서 부터 이 곳 원주민들은 햇빛, 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우산을 쓴다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은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비 맞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였는데 이곳에 와서 은총의 단비를 흠뻑 맞아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하느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에 와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던 것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순간인 듯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기 성찰과 비움으로 가능하기에 하느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성당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기에 누구보다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어진 무상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모습에서 편안함과 여유로운 미소, 잔잔한 행복감이 묻어납니다.

안녕하시냐고 안부조차 묻기 조심스러운 이때,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는 모두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안배로 서로의 안녕을 축복해 주는 은혜로운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직 소개

빠라낙 국립 공동묘지 (Paranyag Public Cemetery)

성가소비녀회가 필리핀에서의 선교를 위해 3명의 수녀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사도직 준비를 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필리핀 하우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철도 주변에서 무허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로 필리핀 주택 공사에서 벽돌로 집 골격만 지어준 공동주택이다. 8천 가구가 살고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우리 수녀들은 이곳에서 방을 하나 임대하여 생활하면서 장학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30 여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거나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우리의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열악한 곳에서의 사도직을 해야 함을 느끼고 새롭게 찾은 사도직은 빠라낙 국립 공동묘지이다. 주 2-3회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곳 사람들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빠라낙 공동묘지는 메트로 마닐라 남쪽 라스피니아스 시에 위치한 국가 공동묘지이고, 라스피니아스 시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장이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풍기는 악취와 쓰레기 태우는 매연은 실로 심각하며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함께 하는 소외된 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주거환경

전형적인 도시빈민지역으로 의(衣) 식(食) 주(住) 모든 부분에서 노출 된 상태이며, 공동묘지 내에서 무허가로 무덤과 무덤 사이 혹은 무덤 위에 판자와 갑바를 이용한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공간으로 비위생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많은 수가 그조차도 없어 많은 수가 큰 공터에서 함께 노숙하고 있다.

주 수입원

일정한 수입 없이 하루에 2~3차례 라스피니아스 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주워 팔아서 얻는 것이 주 수입원이고, 그나마 장례가 나면 무덤에 안치 되는 절차에 필요한 인력에 동원되어 얻어지는 것이 부수입인데 그나마 이 일도 소수의 숫자만으로 제한이 된다. 따라서 보통 하루에 두 끼 혹은 한 끼 식사밖에 하지 못한다.

청소년문제

성(性)에 대한 윤리성이 정립되지 않은 십대들에게 있어서 성이란 배고픔을 채워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밤이 되면 아주 적은 보수(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가 오가는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곳에 사는 많은 초·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중단하고, 때를 지어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마약과 성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의 경우 무덤 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놀이터이자 오락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위생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무덤 사이에 있는 우물에서 씻고 빨래도 한다. 화장실도 없어

노천을 이용하며, 주변의 쓰레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피부 질환 등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상태이다.

우리가 더 찾아 내지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 공동묘지에서 강생의 영성을 좀 더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을 피부로 느끼면서 소비녀들은 주 2-3회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기존의 안정되고 수도 삶의 패턴과 습관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만이 가능한, 더 많은 실질적인 삶으로 체화 되어야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동반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욱 도전해 볼 만한 사도직이 아닐까 싶다.



총장 수녀님과 성가소비녀회 모든 수녀님들께...
+ 임마누엘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신
아기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평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세상 한가운데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희망의 이름으로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장사할 때 물건을 싣고 다니는 조그만 도구가
때로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자동차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아이들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삶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작고 소박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와 세상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늘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수녀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또한 한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성탄을 축하드리며
필리핀 공동체 민다미안 수녀, 박마리후꼬 수녀 올림

2013년 독단강 이야기



개인 사진 이용하여 문패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 혈압, 체중 검사



오락, 휴식 시간



봉성체



성탄 트리 만들기



성탄 예술제 연습



본당과 구역, 공소 발표



본당 합창단 제 1회 공연



세례식과 성탄 미사



2013/12/25 10:25



2013/12/25 10:47

하얼빈에서 오신
수원교구 김영빈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



2013/12/25 10:25



2013/12/25 10:46